

배포

2026. 7. 9.(목) /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사장, 용인국가산단 방문... “속도전 위해 내 역량 집중” 당부

- 「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[6.29]」 발표 이행 위한 신속 행보
- 28년 팹착공 목표 달성 위해 획기적 일정단축 등 속도전 강조
- 매주 사장이 추진 실적 하나하나 점검하며 진행 상황 직접 관리

□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사장은 9일(목)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산단 조기 완성을 강조했다.

○ 이날 이성훈 사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현황 및 일정을 세밀하게 점검했다.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완수를 뒷받침하고자 LH 핵심과제로 ‘용인 국가산단 조성사업 조기 완성’을 선정한 만큼, 사업기간 단축을 통한 속도전을 주문했다.

□ LH는 ‘28년까지 반도체 팹(Fab) 1호기 착공’ 목표 달성을 위해, 잔여 보상 절차 마무리와 착공 준비를 병행하는 등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‘패스트트랙 전략’을 집중 추진한다.

○ 또한 이달 조성공사를 시공책임형CM* 방식으로 발주하고 조성공사를 연내 착공할 방침이다.

* 발주처가 시행한 기본설계 바탕으로 입찰 참여자가 설계개선(VE)과 리스크 대응 과제를 제안받아 평가하여 비교우위 업체를 선정하는 기술형 입찰방식

□ 이성훈 LH 사장은 “LH가 쌓아온 역량을 증명하는 시험대이자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대한 과업”이라며, “사업 관계자 협업, 행정절차 신속 처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반도체 생산라인이 가동될 수 있도록 LH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- 이어서, 이성훈 사장은 매주 용인국가산단 추진 실적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진행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.

담당부서	용인사업본부	책임자	팀 장	윤기종 (031-338-4761)
		담당자	차 장	지광석 (031-338-7680)
				박찬규 (031-338-4763)
				노현승 (031-338-7681)